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계몽된 근대인가, '근대'의 '계몽'인가

신 동 원
전북대학교

The Politics of Smallpox Vaccination in Modern Korea

SHIN Dongw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 discuss on an established view of smallpox vaccination in Korea, 1876-1910. The view has become a kind of myth since its creation in the first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yth has a grandiose story like that: "smallpox was an extremely horrible disease; the traditional medicine was absurd in preventing or curing the disease; many relied on superstitious methods such as a prayer and an exorcism against the disease; introduction of smallpox vaccination, however, changed fundamentally the hopeless situation; eventually smallpox in Korea had been eradicat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vaccination; Ji Seog-Yeong(池錫永), a greater pioneer, played a decisive role in rooting smallpox vaccination in Korea; the credit for eradicating smallpox goes to him." This myth was constructed by Japanese rul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1910-45). By emphasizing the great hero, Ji Seog-Yeong, who had studied smallpox vaccination from Japanese. Japanese rulers intended to cover up systematic actions of Korean government, occupied by Japan in 1910, and to awake their contribution to planting smallpox vaccination in Korea. They also want to justify their ruling over Korean by using the example of their contribution to Korean such as smallpox vaccination. The above myth, however, is a story full of exaggerations. With more detailed primary materials, I construct a different story in this article.

Key Words: Smallpox, Smallpox Vaccination, Variolation, Ji Seog-Yeong, Modernity, Scienc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1. 머리말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우리의 주변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 몇 백년, 몇 천년 동안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변화가 이 짧은 기간 사이에 일어났다. 이른바 근대적 전환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100년 간 이러 저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바뀌었다”, “과학기술상의 놀라운 성취가 있었다”, “한국인의 행복과 복지가 증대되었다” - 이런 서술 태도는 자칫 어떤 도식을 가정하고 그것을 기정 사실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피상적인 결과만으로 합리성 또는 근대성이 모든 곳에 관철하여 승리를 쟁취한 양 서술되기 십상이다.

세상 일에는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아주 다른 식으로 섞여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또 크나큰 변화를 직감하면 그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전사(戰史)를 쓸 때 어느 한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 또는 무대는 다면적이어서 어느 부분을 비출 것인가, 또 똑같은 데라도 어느 쪽에서 조명하는가, 어떤 조명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뭇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과학기술이 논의되는 무대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 서양 과학기술 도입의 상징이 되어버린 우두법의 무대를 재검토하려고 한다. 우두법에 관한 1차 사료를 모아 읽으면서 나는 우두법의 승리를 칭송하는 교과서적 해석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해석이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조선말까지 두창(痘瘡)의 유행은 매우 끔찍했다. 두창에 관한 전통 의학은 무력했으며 터무니없기까지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승이나 굿 등 미신적인 행위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서양의 우두법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두법은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선각자 지식영은 우두법의 도입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우두법은 근대 과학 문물 도입의 개가였다.”

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두법이 널리 시술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방식은 그대로 받아들이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거나, 무시했거나, 단순화한 여러 사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데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네 가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의 우두법 도입의 역사에서 지식영이 실제로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며, 지식영이 우두법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된 계기와 동기가 무엇일까? 둘째, 우두법에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에도 경청할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셋째, 두창의 예방과 치료라는 측면에서 우두법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인두법과 한의학의 모습은 어땠을까? 넷째, 두창의 피해 규모가 어땠으며 사람들이 느낀 위험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 글은 이상의 4 가지 의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나는 그간 다른 연구자가 소홀히 여겼던 여러 사료를 고루 살핌으로써 19세기 두창의 유행과 그에 대한 대응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이에는 우두법, 인두법, 한의학, 무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면적인 고찰을 통해 우리는 그간 그토록 분명하게 윤곽이 그어졌던 전근대/근대, 동/서, 인두법/우두법, 지식영/다른 주체 사이의 관계가 다시 흐릿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식영과 우두법을 부각시키기 위해 희생되었던 인두법, 한의학, 무속 등의 내용이 다시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지식영 신화’가 특정 부분의 일은 ‘크게 부풀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이면에 ‘식민통치자의 정치적인 계략’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식민 통치가 끝난 후에도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 전사(戰史) 쓰기—“조선의 「젠너」 지식영 선생”

나는 먼저 1934년 조선총독부 과학관장 겸 해군 소장이었던 시게무라(重村義一)의 발언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조선에는 과학의 발달이 없었다는 것을 장황하게 말하고 나서, 우두법과 지식영의 기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런 비과학적인 분위기 중에 홀로 빛을 떨친 것은 이조말 조선의 제너라 불리는 송촌 지식영 선생이다. 나는 정신적 과학의 유지자로서 선생을 추천하고 싶다. 선생의 나이가 이미 팔순을 넘었으며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으시지만, 선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과학을 옹호했던 참혹한 역사는 실로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는 의술로는 한의술 밖에 없었으며,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조선 8도에는 두역(痘疫)이 그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 때 조선에 살았던 한의 지(석영)씨는 일찍이 종두법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논술된 책을 입수하여 감명 깊게 읽었으며, 메이지 12년(1879년) 겨울 분연히 경성을 떠나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부산에 가서 당시 주재했던 해군 군의 토초카(戸塚積齋)씨를 찾아 종두의 핵심을 배워 이를 각도에 전파하여 두역의 참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종두의 과학적 효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민중은 도리어 이를 외국의 마술, 사법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집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사회의 비상한 배척을 받았다.

메이지 15년(1882년)에는 군중이 달려와서 그의 종두장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여 씨가 겨우 몸을 숨기는 것 같이 기타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고 그의 고충은 실로 말하기도 힘들 정도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더욱 종두술을 확신하여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붓으로 입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당시의 지방관리 등도 아직 종두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 마침내 포박령을 내릴 지경이 되었다. 향리에 귀향 가셔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집 문에 “1문(文)의 적은 값에도 종두를 시행한다”는 뜻말을 내걸고 의연히 종두를 실시하여 나를 희생하고 세상을 구제하고자 했을 뿐 일신상의 이해를 전혀 도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비장한 결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서히 8도의 문화도 날로 그 면목이 쇠신하여 지난날에 사술로 매도되었던 증두법이 이제는 하늘이 내린 복음으로 이해되어 전 도가 모두 그 혜택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모두 자 선생의 피땀어린 노력과 고군분투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우리들은 이러한 희생적 사실이 잊혀지는 것을 염려하여 경성제대 총장이 시가(志賀)박사와 논의하여 지씨의 증두에 관한 저서와 당시 사용했던 증두기구를 수집하여 이를 과학관에 진열하여 길이 씨의 공적을 칭송하고자 한다.¹⁾

이 글에서는 지식영의 생애와 업적이 짧지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실만을 놓고 볼 때, 이 글에 그릇된 것은 없다. 지식영이 일본인이 지은 『증두귀감』이라는 책자로 우두법의 존재를 알았고, 곧바로 부산에 가서 일본인 의사에게 우두법의 요령을 배우고 백신 일부를 얻어 일부 조선인에게 시술했으며, 1882년에 신사유람단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우두백신의 제조법을 확실하게 터득한 후 증두장을 개설하여 시술하다가 박해를 받았으며,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우두법을 민간에 시술했다. 이런 내용은 대체로 다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각 사실에 대한 해석과 전반적인 논조에는 감상과 흥분이 흠뻑 묻어 있음을 주목한다. “조선의 무능”, “사회의 무지와 탄압”, “선각한 과학자의 숭고한 자기희생”, “그것의 결과인 우두법의 정착과 과학 문명의 세례”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는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이런 해석이 주변 사실의 은폐, 왜곡, 단순화, 과장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²⁾

초야에 묻혀 있던 지식영을 갑자기 다시 불러낸 것은 “우두법 도입 50주년(1879년 지식영이 일본인에게서 증두법을 최초로 학습한 것을 기점으로 함)”에 즈음해서이다. 총독부에서는 그를 찾아냈고, 당시 매스컴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1928년 11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는 “조선의 젠너-송촌 선생”의 생애를 여러 날에 걸쳐 길게 연재하였다. 이 신문의 내용은 조선 증두법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조선증두사”³⁾(1935년)에 그대로 담기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후 조선의 우두법 연구의 정설이 되었다.

1908년 의학교 교장인 지식영을 학생감으로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그를 쫓아냈던 일본 통치자들이 그보다 20년 후 초야에서 ‘의생(醫生)’으로 은둔해 있던 지식영을 다시 불러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행적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할 그 어떤 요소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1) 重村義一, “朝鮮の精神的科學者 池錫永 先生”, 『朝鮮同胞の光』 (1934), 124-6쪽.

2) 지식영의 우두법 신화와 비슷한 구조를 대동여지도 작성자인 김정호의 행적의 기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통치자들은 김정호가 개인적인 탐구심의 발로로 그것이 만들어졌으며, 조선인과 정부는 물 이해와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꾸뻘다. 김정호의 옥사설이 하이라이트 부분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술이 모두 허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는 관아의 지원을 받아 대동여지도를 작성했다.

3) 三木榮, 『朝鮮種痘史』 (1935).

“일본인에게서 우두법을 학습해서 온갖 무지와 저항을 이겨내면서 우두법 보급에 힘을 쓴” 지식 영의 삶에는 비과학적 사고가 판을 치던 조선 사회, 무능한 정부와 그것을 구원한 과학문명국 일본의 선정(善政)을 끌어낼 수 있는 극적인 소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3. 조선말 우두법과 지식영

19세기 조선의 우두법에서 지식영의 활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우두법의 도입과 정착 과정을 여러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지식영의 기여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19세기 조선의 우두법 정착의 단계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개항 이전에 우두법이 비공식적으로 소개된 시기이다. 둘째는 개항 직후(1876-1884) 몇몇 우두 학습자가 민간 차원에서 우두법을 시술한 시기이다. 셋째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영아를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실시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시기(1885-1893)이다. 넷째는 갑오개혁-대한제국 전반기의 ‘종두규칙’과 ‘종두의양소규칙(種痘醫養所規則)’에 입각해서 조선 정부가 우두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시기(1894-1905)이다. 다섯째는 통감부 경찰의 활용으로 우두법이 강제적으로 시행된 시기(1906-1910)이다. 대체로 처음의 세 시기는 우두법에 대해 알아 나가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으며, 나중의 두 시기는 우두법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기였다. 이 중 특히 둘째, 셋째 기간 중 지식영의 활동(1879-1887)이 주목된다.

조선에서 우두법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정약용의 『마과회통』에 부록으로 실린 토마스 스타튼이 한역한 「신증종두기법상설(新證種痘奇法詳悉)」(1828년)이 분명하다.⁴⁾ 이 책에는 우두 접종법, 접종의 성공을 가려내는 법, 접종 후 금기 사항, 소아의 접종 부위, 접종 기구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다음에는 최한기의 『신기천첩』(1866년)에 우두법이 소개되었다. 그 내용은 정약용의 것보다 훨씬 상세하며, 특히 서양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우두의 내력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실려 있다. 이 역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항 이전 우두법의 시행을 알려주는 기록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이다. 이 책은 북쪽 국경 지방과 강원도 지방에서 우두법이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⁵⁾ 그렇지만 서학 탄압의 사회 분위기 속에

4) 김두중,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 『서울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학 4집(1956), 51쪽.

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권11(동국문화사 영인본, 1993), 376-7쪽.

서 우두법은 널리 확산되지 못했고 제도적인 정착을 보지 못했다.⁶⁾

개항 직후에는 민간에서 여러 사람이 우두법을 시행했음이 확인된다. 잘 알려져 있는 지식영과 그 밖의 이재하, 최창진, 이현유 등이 그들로 주로 1880년대-90년대 초에 우두 시술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개항 전후 청이나 일본을 통해 우두법을 배웠다. 여러 인물 중 이재하가 주목된다. 그 스스로 지식영보다 일찍이 우두법을 시술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쓴 『제영신편』(1889년)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지난 올해(1875년)년에 내가 평양[溟館]에 놀러 갔을 때 계득하(桂得河)를 사귀었다. ... 영국 양의가 확립한 인애스럽고 덕이 넘치는 우두법에 대해 들었다. 그것을 들으니 소경이 눈을 뜬 듯,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는 듯하였다. 후에 지식영이 일본인에게서, 최창진이 중국인에게서 이 법을 배웠다.⁷⁾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식영보다 앞서 우두법을 알게 된 것이 된다. 문맥상 그가 지식영보다 일찍 우두법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식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876년 수신사 일행을 수행한 박영선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두법의 존재를 알았고, 이어 1879년에 부산 일본인 거류지의 제생의원을 찾아가 우두법을 학습했으며, 1880년에는 수신사 일행을 따라 일본에 가서 우두백신 제조에 관한 일체를 학습하였다.⁸⁾ 이유현은 1881년에 중국에서 우두법을 학습했다.⁹⁾

비록 지식영보다 먼저 우두법을 배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고, 지식영과 비슷한 시기에 우두법을 시술한 사람도 여럿 있지만, 이 시기 우두법 도입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지식영이다. 조선에 최초로 우두법을 도입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두법이 정부의 사업으로 채택된 점이다. 다른 인물과 달리 지식영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안에 있었다. 지식영은 우두법에 관한 정보를 정부측 인사(박영선)로부터 들었으며, 본격적인 우두법 학습을 정부 활동의 일환(수신사)으로 학습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직후 조선 정부는 서양 의술을 시술하는 제중원, 항구를 중심으로 한 검역 활동과 함께 우두법의 전국적인 실시를 꾀했으며, 이 가운데 우두법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1885-1890년 조선 정부의 우두사업은 북으로는 간도, 남으로는 제주도에 미칠 정도로 전국적 규모로 시행되었다. 1군에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 정도의 우두의사가 파견되어 모든 영유아를

6)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20쪽.

7) 이재하, “제영신편”, 『한국의약대계』 51(여강출판사, 1994), 739쪽.

8) 기창덕, “지석영 선생의 생애”, 『송촌 지식영』(대한의사학회, 1994), 25-7쪽.

9) 김두중, 앞의 논문, 57쪽.

대상으로 우두접종을 실시했다.¹⁰⁾ 1885-6년 지석영은 우두의 전도사로서 주역을 담당했다. 1885년 지석영은 충청도 우두교수관이 되어 충청도 전역을 커버하는 우두의사를 양성해냈으며, 『우두신설』을 지어 우두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1887년 이후 지석영은 정부의 우두사업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갑신정변 배후 인물의 하나로 탄핵받아 강진의 한 섬(신지도)으로 쫓겨났기 때문이다.¹¹⁾ 1892년 유배에서 풀린 후 지석영은 한성에서 '우두보영당(牛痘保嬰堂)'을 차려 놓고 개인적으로 우두시술을 했지만¹²⁾, 그는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우두사업에서 주역이 아니었다.

조선의 우두법 정착과정에서 1894-1905년은 매우 중요하다.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전국민의 의무 접종을 규정한 「종두규칙」과 인력의 양성을 위한 「종두의양성소규칙」이 반포되었다. 1897년에는 종두의양성소가 설립되어 1899년까지 53명의 종두의사가 양성되어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활동에 들어갔다.¹³⁾ 1900년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몇 만명 이상이 종두 접종을 받았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조선의 보건사업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일본조차도 이 시기 종두법에 대해 자신들이 통치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부문으로 평가를 내렸다.¹⁴⁾ 이 시기 지석영은 종두의사의 양성과 종두 행정에서 아무런 임무도 맡지 않았다. 다만 논객 또는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였을 뿐이다. 1897년 우두법 실시를 촉구하는 논설을 『독립신문』에 발표했고, 1903년에는 『황성신문』에 당시의 종두사업을 평가하는 글을 투고했다.

종두사업이 더욱 강한 행정력으로 정착된 것은 통감부 실시 이후이다. 1908년까지 다소 부진했던 종두접종 사업이 이 해부터 무료 접종, 강제 접종을 통해서 접종자 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 여자 종두접종원을 두어 여아의 접종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접종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1908년 말 전국적으로 54만 명, 1909년 말 68만 명 접종한 것으로 통계가 잡혔다.¹⁵⁾ 이 엄청난 접종자 수 증가는 무단적인 헌병과 경찰의 동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¹⁶⁾ 이 시기에 지석영의 종두 활동은 거의 없었다. 1908년 통감부 초기의 종두사업의 부진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 확인될 뿐이다.¹⁷⁾

10) 신동원, 앞의 논문, 86쪽.

11) 기창덕, 앞의 글, 33쪽.

12) 같은 글, 36쪽.

13) 신동원, 앞의 논문, 169쪽.

14) 같은 논문, 179쪽.

15) 『대한매일신보』, 1910. 7. 14.

16) 신동원, 앞의 논문, 327-8쪽.

17) 『황성신문』, 1908. 3. 4.

지금까지 나는 조선말 우두법과 관련된 지식영의 활동을 살펴왔다. 나는 개항 이후 식민지 강점 이전까지 우두법 정착 과정에서 지식영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최초의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으며(1단계), 최초의 정부 차원의 사업에서 주역을 맡았다(2단계). 그렇지만 이후의 활동은 그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논객 또는 정치가로서 우두법의 실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만일 조선의 우두법 도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단 한 사람만 꼽는다면, 나는 지식영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인물의 활동도 있었지만, 것처럼 일관되게 자신의 관심을 펼치고 그것을 성과로 일구어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식영과 동시대 인물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황현(黃玹)도 『梅泉野錄』(1910년)에서 지식영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서울에 지식영이라는 자가 있어(역관의 집안이다) 어려서부터 시를 배워 서화를 알고 일본에 건너가 우두를 배워 1879년, 1880년간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지방을 순방하면서 우두를 가르치더니 점차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¹⁸⁾

나는 이런 정도의 해석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오직 지식영의 활동 때문에 조선에 우두법이 정착되었다는 식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식영은 조선 말의 보건의료 상황과 개화적 상황을 잘 포착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나갔던 것이지, 그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두법은 서양에서나 중국,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개항이후 개화 정부나 수구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간주했던 사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식영의 활동이 다른 인물보다 두드러졌던 것이지, 그가 몸을 던져 무지와 몽매를 깨쳐 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일궈냈던 것은 아니다.

4. 19세기 조선의 우두법과 인두법

종두법(種痘法)이란 용어는 ‘두(痘)’를 ‘심는[種]’ 방법을 말한다. ‘두’란 두창을 앓은 개체에서 얻은 딱지나 고름을 뜻한다. 18세기 초엽 이후 앓는 인간에게서 얻은 ‘두’를 이용하는 방법인 인두법이 조선에 먼저 수입되었다. 이 때에 종두법은 인두법을 의미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앓는 소

18) 黃玹, “池錫永의 牛痘傳習”, 『梅泉野錄』 권1 상, 갑오이전(新志社, 1955), 52쪽.

에게서 얻은 ‘두’를 활용하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둘 사이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두법이라는 말이 사용됐다. 1894년 이전까지 우두의사(牛痘醫士)는 우두 시술자, 종두의(種痘醫)는 인두 시술자를 지칭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두법이 우두법의 공식적인 용어로 규정되었다. 인두법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퍼져 나갔으나 1885년 우두법의 전면 실시 이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인두 시술자가 존재했다.

사실, 의학적 원리만을 놓고 볼 때 인두법과 우두법은 전혀 차이가 없다. 둘 다 앓은 개체에서 미량의 딱지나 고름을 취해서 안 앓은 개체에게 시술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조선에서 인두법 저작인 정약용의 『종두요지』(1800년), 이종인의 『시종통편』(1817년)과 우두법 저작인 정약용의 『신증종두기법상설』(1828년), 지석영의 『우두신설』(1885년)을 비교하면 접종액(또는 딱지)의 채취 방식, 시술대상자의 선정과 사후 관리, 접종 방식, 접종액(또는 딱지)의 보관, 접종 관련 기구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인두법은 두창을 앓은 환자의 진성 두를 쓰기 때문에 매우 독성이 강했다. 또 코를 통해서 그것을 주입하기 때문에 폐기도를 통한 두창의 감염 위험이 있었다.¹⁹⁾ 그것의 강한 독성 때문에 우수한 두 딱지를 골라내는 것이接种의 관건이 되었으며²⁰⁾, 接种자의 나이(1살 이상)와 건강 상태를 따져야 했고²¹⁾, 接种 후에 생기는 각종 잡증에 대한 처치가 중요했다.²²⁾ 인두법은 경험적으로 내려오던 방식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두 딱지의 보관, 接种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구(절구, 그릇, 솥)가 단순했다.²³⁾ 또 특별한 보관법이 없었기 때문 채취해 둔 두가 쉽게 부패했다.²⁴⁾

우두법은 소의 두를 이용했으며, 이는 진성(眞性) 두보다 독성이 훨씬 약한 것이었다. 우두법에서는 소의 젖 부위의 여러 곳을 接种해서 사람에게 接种할 두장(痘漿, 백신)을 얻어내기 때문에 대량 채취가 가능했다.²⁵⁾ 이렇게 채취한 백신을 소, 소와 소, 소와 接种대상자인 사람 사이의 중계를 통해 효과가 크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接种액을 생산해냈다.²⁶⁾ 인두(人痘)보다 독성이 훨씬 약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70-100일)와 허약한 아이에게도 시술할 수 있게 되어서 接种대상자 폭이 훨씬 넓어졌다.²⁷⁾ 반면에 사후 관리의 필요성은 훨씬 적어졌다. 또 우두법은 팔뚝 부위에 약간

19) Kenneth F. Kiple Edition, *The Cambridge World History of Human Dise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1010.

20) 정약용, 『종두요지』, 『마과회통』 (아세아문화사영인본), 14쪽.

21) 李鐘仁, 種痘終始凡例, “時種通編”, 『한국의약대계』 37(여강출판사, 1994), 611-2쪽.

22) 지석영, “우두신설” 하, 『송촌 지석영』 (대한의사학회, 1994), 186쪽.

23) 이종인, 앞의 자료, 645쪽.

24) 지석영, “우두신설” 하, 앞의 책, 187-8쪽.

25) 지석영, “우두신설”, 『송촌 지석영』 (대한의사학회, 1994), 189쪽.

26) 같은 자료, 187쪽.

의 흠집을 내어 접종하는 더욱 안전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코로 접종하는 방식보다 두창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었다. 당도(糖度)가 높은 침유(올리세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백신의 부패를 오랜 기간 막을 수 있었다.²⁸⁾ 모세관, 눈금이 그어진 비이커, 온도계를 썼기 때문에 접종액의 양과 필요한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²⁹⁾

여러 측면에서 우두법이 인두법보다 더욱 우월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더 안전했으며, 더 효과가 있었으며, 더 정밀했으며, 더 쉽게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술상의 우열을 크게 강조하면서 인두법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태도는 비역사적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인두법은 우두법과 함께 두창의 예방에 매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³⁰⁾, 이는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에서 능숙한 시술자가 인두법을 시술한 경우 3-4퍼센트의 실패밖에 안 나며, 매우 능숙한 시술자의 경우에는 1퍼센트 미만의 실패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³¹⁾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조선의 이종인이 쓴 『시종통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인두법의 최고 공로자인 그는 “열 번이면 열 번, 백 번이면 백 번,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³²⁾고 썼다.

『시종통편』은 처음 나온 후 매우 널리 읽혔다. 더불어 인두법이 민간에 널리 확산됐다. 19세기 중엽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종두변증설」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포천에 사는 이종인(의관으로 관직이 지현(知縣)에 이르렀다)이 시작한 이후에 다시 영남에 전해져서 근세에 종두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이종인이 지은 『시종통편』에 그 방법이 적혀 있다.³³⁾

『오주연문장전산고』가 헌종(1835-1849년) 시기에 나온 저작이므로, 위의 책이 나온 1817년 이후 불과 20-30년 사이에 인두법이 민간에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 “근세에 종두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이규경의 말이 약간 과장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40년 정도가 더 지난 1880년대에는 인두종법이 훨씬 더 민간에 퍼져 있었다. 1886년 알렌은 서울 거주자 가운데 100명중 무려 60-70명이 이 종두법을 받은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³⁴⁾ 이 역시 과장된 것처럼 보이나, 인두법이

27) 지석영, “우두신설” 하, 앞의 책, 181쪽.

28) 같은 자료, 187-8쪽.

29) 지석영, 『우두신설』 하(1885), 11쪽.

30) Roderick E. McGrew, *Encyclopedia of Medical History* (London: MacMillan Press, 1985), p. 156.

31) Kenneth F. Kiple Edition, 앞의 책, p. 1010.

32) 이종인, 앞의 자료, 612쪽.

33) 이규경, “종두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이문사, 1992).

34) 알렌(최동 옮김), “조선왕실병원 제1년도 보고서(1886)”, 『조선의보』 (1946), 107쪽.

민간에 매우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케 해주는 기록이다.

19세기 인두법의 정착은 우두법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우두법이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빛'으로 등장한 것이 아님을 뜻하기 때문이다. 비록 안전성과 효율성이 우두법보다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전에 그토록 위력적인 예방법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인두법의 존재가 오히려 '어둠 속의 빛'과 같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서 우리는 19세기 조선의 인두법이 두창 예방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확인된 것처럼 인두법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률 저하에 크게 영향을 줄만큼 조선 사회의 집단 면역력 수준을 끌어올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의 인두법은 우두법만큼 후대의 각광을 받지 못했다. 강력한 경쟁자인 우두법이 얼마 안 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인두법이 우두법-지식영-일본의 도움-서양과학-문명화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인두법은 그 자체로서 역사성을 평가받기보다는 우두법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물로 그 존재가 규정된 측면이 강하다.

5. 종두법과 한의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두법은 서양적인 것이며 한의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대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의 의학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종두법이 서양과학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한의학을 물리치고 새로운 '개명'을 가져다 준 것처럼 각인된 것은 후대에 행해진 작업의 결과이다. 신문물의 도입에 주목한 사람들은 종두법과 한의학의 간극을 벌리는 데 열중했지 둘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종두법과 한의학은 한 데서 발달해온 것이니 만큼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 미세한 양의 두 딱지나 고름이 두창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사실이다. 이종인의 『시종통편』에서는 송대의 인종 때 사천 지방의 어떤 의사가 종두를 시행한 것을 최초의 공식적인 시술로 기록하고 있다.³⁵⁾ 조선에 수입된 종두법(인두법)은 명대의 의서인 『의종금감』, 『난대계법』, 『종두신서』 등의 한의서에 담긴 내용이었다.³⁶⁾ 종두법 이전의 한의학

35) 이종인, 앞의 자료, 644쪽.

36) 같은 자료, 609쪽.

을 보면, 두창의 원인, 예방법, 단계별 증상의 감별, 증상별 치료, 후유증의 치료, 환자의 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⁷⁾ 종두법을 담은 의서는 이런 내용에 덧붙여 종두법을 부록으로 실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인두법 저술인 『시종통편』은 시두(時痘)와 종두를 함께 다뤘다. 시두란 두창을 앓는 것을 뜻하는데, 이종인은 상세하게 두창을 치료하는 내용을 실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두에 관한 다수의 내용은 이전 의서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종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접종 방식과 함께 접종 후 환자의 상태에 많은 처방을 제시했다. 진성 두를 그냥 이용하는 인두법은 독력이 매우 강해 환자가 대개 심한 앓이를 했기 때문이다. 처방은 열을 내리거나 몸을 보하거나 아득한 정신을 되돌리는 것 등 한의학에서 익숙한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우두법은 서양에서 발전시킨 것을 수입했기 때문에 중국의 자생적인 인두법의 경우와 성격이 다소 달랐다. 소의 고름(백신)을 이용한다는 점, 외과용 칼을 쓴다는 점, 훨씬 정량적인 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원리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법상의 차이로 해서 인두법은 전통적인 것으로 우두법은 서양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19세기 초 정약용이 「신증종두기법상설」에서 우두법을 최초로 소개하면서,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양을 연상시키는 모든 부분을 삭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두법은 확실히 서양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우두법 지지자들이 서양의 대표적인 문물 중 하나로 우두법을 생각했다.

우두법은 분명히 서양적인 것으로 위력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한의학의 보조나 개입을 초래할 의학적 한계가 있었다. 우선 우두법은 예방에는 강력했지만 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두법은 어디까지나 병을 예방하는 정교한 기술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병을 완전히 예방해서 구태여 치료 수단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에 두창을 앓는 환자가 많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의료는 여전히 한의학의 몫이었다. 인두법의 경우 시두(時痘)와 종두(種痘)를 한데 아우르는 시도가 있었지만, 우두법의 경우에는 그 둘이 섞이지 않았다. 우두시술자는 두창의 치료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한의들은 우두법을 자신의 의학 체계에 포섭하지 않았다. 두 의학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그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서양에서 들어온 우두법은 우두 접종 후에 생기는 여러 잡증의 관리를 다루지 않았고, 우두법의 효력이 왜 생기는데 대해서 침묵했다. 지석영을 비롯한 한의 출신의 우두시술자들은 이 빈틈을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메웠다. 지석영의 『우두신설』(1885년)과 이재하의 『제영신

37) 허준의 『언해두창집요』나 『동의보감』의 두창 관련 부분(「소아편」)도 이런 체제를 따른다.

편』(1889년), 김인제의 『우두신편』(1892년)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두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잡증에 대해 한의학 처방을 제시했다. 지식영이 주로 외과적 상황에 대해 약을 처방한 것³⁸⁾과 달리, 이재하는 발열, 경기, 빈민, 호흡곤란, 설사 등 내과적 증상에 대해서도 폭넓은 처방을 내렸다.³⁹⁾ 김인제는 아예 각종 처방을 노래(用藥賦)로 지어 책 말미에 달았다.⁴⁰⁾

우두의 기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한의학적 답을 내린 사람은 김인제이다. 그는 “왜 팔뚝에 접종을 해야 하는가?”, “왜 소만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소가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닭·개·소·말·6축을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두를 삼고 있지만, 특별히 소를 취하는 것은 소[牛]가 토[土]의 성질을 지녀 순하기 때문이다”⁴¹⁾는 답변을 내렸다. 그는 순하다는 것을 오행의 논리로부터 끌어냈다. “왜 팔뚝에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장육부의 경락변증으로 문제를 풀었다. 즉 “팔뚝이 양경혈(陽經穴)에 속하여 장부의 열을 주관하므로 이곳에 접종하면 양경혈맥(陽經穴脈)을 따라서 장부에 들어간다는 것”⁴²⁾이었다.

조선에서 종두법과 한의학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문헌은 대한제국 학부(學部)에서 종두의양성소 교재로 편찬한 『종두신서』(1898년)이다. 이 책은 이전의 책과 달리 서양의사 출신인 일본인 후루시로(古城梅溪)가 썼다. 1899년 의학교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서양의학 전공자가 생기면서 이전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종두법과 한 의학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본격적인 서양 의학을 학습한 사람들이 우두법을 장악하게 되면서 ‘시대를 잘 읽은’ 한의들이 주도했던 우두법의 시대는 저물었다. 20세기 들어 서양의학을 잘 하기 위해 한 의학을 부정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움트기 시작했다. 1930년 무렵에는 우두법의 위용을 한 의학의 무력함에 대비시켰다. 지난 세기의 관계는 완전히 부정됐다.

6. 우두법을 반대한 ‘수구’의 논리

젊은이: “그새 기운 어떠시오?”

38) 지식영, “우두신설”하, 앞의 책, 186쪽.

39) 이재하, “제형신편”, 『한국의약대계』 37(여강출판사, 1994), 771-2쪽.

40) 김인제, “용약부”, 『우두신편』 (1892). 이 책은 최근 한의학연구원의 안상우 선생이 발굴한 것으로, 18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우두의사로 활동했던 김인제가 쓴 것이다.

41) 김인제, 『우두신편』 (1892), 6쪽.

42) 안상우, “세월 속에 묻혀진 우두보급의 역사”, 『민족의학』 (1999. 8. 30); 김인제, 앞의 책, 5-6쪽.

늙은이: "어 나는 잘 있네마는 어린놈이 역질을 아니하였는데 요새 동네 마마가 돌었다니 어찌하면 좋을
는지 속이 답답하네."
젊은이: "아 그렇게 염려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라고 다 역질시킬라구요?"
늙은이: "하 나는 역질이라면 기가 나네. 어린 것을 다섯째 역질에 잃어버리고 이것 하나 남았네."
젊은이: "저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소. 그 새로 난 우두법이 제일 좋습니다다 그레! 왜 우두 아니 시키시오."
늙은이: "허허 우두가 좋기는 하겠네마는 나는 그것은 아니 하겠네."
젊은이: "왜요? 마마에 죽을 어린아이를 우두 넣어서 살려도 싫어요? 웬 아니하실 말이요. 나는 그런 소
리 들으면 화가 납니다."
늙은이: "허 제 명예 마마에 죽을 터이면 우두를 넣어서 살리기로서니 얼마 산다던가? 다 제 명예 달렸나
니 우리나라 사람은 타국 사람과 달라서 죽더라도 마마를 시켜야 하나니."
젊은이: "무엇이요? 하 답답할 지고. 당신 말씀같이 생사가 명예 달렸으면, 병들어도 의원이나 약은 다
쓸 데 없겠지요."
늙은이: "그래도 아니 쓸 수 있나."
젊은이: "왜 써요? 다 명예 있거든 병을 약 써서 고치기로니 며칠 살겠소."
늙은이: "그는 그렇지마는 조상 적부터 내려오는 약이야 아니 쓸 수 있나."
젊은이: "옳지. 알아들겠소. 당신 조상이 징역 하였으면, 당신도 징역하고, 당신 아들 손자 다 청바지,
저고리 입힐 터이지요."⁴³⁾

이는 1898년 7월 1일자 『매일신문』에 실린 글로 '수구를 대표하는 늙은이 1인과 개화를 대표하
는 젊은이 1인이 만나서 수작하는' 상황을 꾸민 것이다. 이 글을 쓴 기자는 개화를 대표하는 젊은
이 또는 근대의 전사로서 싸움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져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
다. 그의 화살은 오랜 기간 무겁게 조선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패배주의적 운명론을 겨누고 있
다. 그의 무기는 우두법이라는 신기술이다. 우두법은 주변에서도 쉽게 효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으로 개화된 문명국이 이미 확실히 보증한 그런 성격의 것이다. 그는 바로 이를 무기로 삼아 우두
를 맞지 않는 수구적인 자들의 '납아빠진' 세계관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수구적인 늙은이'는 운명론과 전통이라는 무기로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
다. 그들은 "사람은 설사 일찍 죽는다 해도 제 명대로 살다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
무런 약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냐?"는 추궁에 "조상들이 쓰던 것들은 쓸 수 있다"고 대답한다. 하
지만 기를 쓰고 우두법은 쓰지 않았다고 한다.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해도 조상이 쓰지 않았던 것이
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무슨 억지인가? 바로 이런 억지스러움이 이 글을 쓴 기자가 노
리는 것이다. 개화한 젊은이가 볼 때, 수구의 늙은이의 논리란 아무 것도 없고 억지스럽게 인습만
고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종두의 과학적 효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를 외국의
마술, 사범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집에도 받아들이지 않는"⁴⁴⁾다

43) 『매일신보』, 1898. 7. 1.

고 말한 한 일본군 소장 시게무라의 인식은 이와 똑같은 지평에 있다.

수구론자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매우 소박하며 도식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반대한 논리는 단순히 인습 때문만이 아니었다. 설사 그게 인습이었다고 해도 쉽게 매도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사실, 우두 반대론에 대한 모든 평가는 모두 우두법을 지지하는 측에서 진술한 것이다. 거기에는 편견이 묻어 있다. 수구의 논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왜 그들이 우두법에 그토록 저항했는지 이유를 진지하게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가 아닐까? 안타깝게도 우두법을 반대한 측의 자료는 얻기 힘들다. 그들의 발언이 정면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두론자의 글을 재음미함으로써 그들의 반대 이유를 읽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자세히 보면, 그들은 우두법이 확실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기술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의심했다. 더 나아가 우두법의 정치성, 경제성, 사회성에 더욱 심한 반감을 품었다.

우두 접종을 받았는 데도 두창에 걸린 사람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접종 효과가 없어서 두창에 걸린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접종을 받아서 병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인가? 불행히도, 당시에는 우두 접종자 중 두창 발생자가 적지 않았다.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차, 3차 접종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접종자 중 두창에 걸린 자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접종의 미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지 않았고, 접종 때 생긴 병의 여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믿었다.⁴⁵⁾ 이러한 접종자의 두창 발생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은 우두법에 반감을 느낀 측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다. 1880년대 후반의 한 기록에서는 “무녀와 인두시술자들이 우두를 맞으면 다시 두창에 걸리게 된다. 이 때 두창에 걸리게 되면 살아나기 힘들며, 설사 살아난다고 해도 30세밖에 못산다는 말을 퍼뜨렸다”⁴⁶⁾고 말하고 있다.

우두 접종이 무료가 아니었던 1908년 이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두법의 큰 장애가 되었다. 우두 접종비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의 우두사업은 우두 접종자에게 접종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비용으로 백신을 만들고, 우두의사의 생활비를 보장하며, 행정지원 비용을 뺀고, 더 나아가 나라의 세금까지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우두 접종자에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접종비가 매겨졌다. 1885년의 예를 들면 1회 접종비가 5냥이었다. 이 때 하급미 쌀 한되 값이 1냥이었으니⁴⁷⁾ 5냥이면 하급미 반 말 정도의 값이었다. 만일 2차 접종을 한다면

44) 重村義一, 앞의 글, 124-6쪽.

45) 『황성신문』, 1904. 4. 13.

46) 김인제, 『우두신편』(下) (1892), 4쪽.

47) 『한성주보』, 1886. 1. 28.

하급미 1말, 3차 접종을 다 받으면 하급미 1말 반을 접종비로 지불하는 셈이 됐다. 1인 1차 접종에 하급미 반말 값은 가난한 집에 큰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우두기술자의 횡포와 토색이 겹쳐져서 이들에 대한 민간의 반감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들의 횡포와 토색에 대한 기사는 1880년대 후반, 1900년도 전후를 막론하고 매우 자주 눈에 띈다.⁴⁸⁾ 약을 넣지 않고도 약을 넣었다고 말한다든지, 돈을 내지 않은 자들을 죄수처럼 다룬다든지 하는 따위가 그런 사례들이다.

우두법의 기술상의 미비점, 비교적 높은 우두접종비, 우두의사들의 작간과 함께 우두법의 경쟁자인 무녀와 인두기술자는 전통과 서양의 대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우두론자들이 전근대와 근대라는 논리를 펼친 것과 유사하나, 서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양립하기 힘든 차이가 존재했다. 우두론자에게 서양이란 “우두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곳이며, 그를 써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곳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었다. 우두사업을 시작하면서 통리고섭통상아문이 전국에 내린 관문(關文)에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다.

... 지금부터 90년 전에 비로소 우두하는 법이 서토(西土)에서 창안되었으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 오늘날 오대양 횡미(橫眉)의 백성들은 모두 이 법에 의지하여 한 사람도 두에 상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만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들음이 적었다. 다행히도 성운을 만나 개명함이 날로 더해가게 되었다. 진실로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본받아서 행하지 않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물며 우두법과 같이 보제중생(普濟衆生)하는 제일 첫 번째 공덕과 관계가 있는 것에 있어서랴!⁴⁹⁾

반면에 무녀나 인두기술자 등 반대자의 눈으로 볼 때 서양이란 조선의 아이를 죽이는 사악한 마술로 파악되었다. 심지어는 서양인이 조선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를 두려워하여 어린아이를 안고 산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다.⁵⁰⁾ 반대자에게 서양이란, 시시각각으로 침투되어 들어오는 서양세력을 뜻했다. 그 ‘서양’이란 전통적인 것을 폭력적으로 부정하는 원천으로 비취졌다. 우두법도 이런 조선 말의 위기의식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를 단지 무지와 맹목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석이다.

다시 서두의 젊은이와 늙은이의 대화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젊은이는 늙은이의 ‘억지스러움’을 회화하여 공격하고 있지만, 늙은이의 눈에는 서양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계를 망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비취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

48) 신동원, 앞의 논문, 174-76쪽.

49) 『우두절목』(1885, 서울대 규장각 문서번호21389), 1-2쪽.

50) 『九道四郡關抄』, 1890. 5. 18.

양 중 우두법이라는 구성 요소 하나만을 떼어서 맘껏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⁵¹⁾ 만일 거꾸로 늙은이가 젊은이를 회화한다면, 몇몇 미끼에 속아 전통의 미풍양속을 송두리째 버리고, 나라마저도 외국 놈에게 내주려는 철부지로 그들을 묘사했을지도 모른다. 우두법은 근대의 일방적인 승리의 맥락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과 근대, 조선과 서양이라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두법의 최종 정착이 일본 헌병과 경찰이 동원된 무단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미접종자를 형사범처럼 나포하며⁵²⁾ 심지어는 총칼을 휘둘러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⁵³⁾ 설득과 계몽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겠지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던 일본은 전염병 관리와 우두법 실시를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역병의 예방과 건강의 향상이라는 목적의 이면에는 피식민자 개개인에 대한 반(半)폭력적 통치 행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런 무단적 행위에 대해 조선 민중은 엄청난 반감을 품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도구로 활용한 우두법과 같은 근대문물 그 자체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수구론자의 논리 중 마지막으로 짚을 것은 무속적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다. 단지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굿을 해서 살아남는 영아는 전체의 80퍼센트에 달했다. 1세 이하 두창 환자의 치명율이 20퍼센트였으니까.⁵⁴⁾ 이 수치는 주변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굿판으로 해서 두창이 낫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했음을 뜻한다. 그것은 죽어나가는 사람보다 몇 갑절 더 많은 것이었다. 오늘날 볼 때, 저절로 나을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러한 소생의 비율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강하게 집착해온 두신(痘神)과 무당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무당은 자신이 굿을 해서 마마를 물리친다고 믿었으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설령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그것은 정성 부족이나 필연적인 운명 등으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었다.

무속적인 설명 방식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족적인 것이었다. 이런 구도 안에서 살아나면 다행을 부르짖었고, 행여 죽게 되면 운명의 틀 안에서 슬픔을 접을 수 있었다. 이는 서양에서 유래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세계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근대 이전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무속적 세계관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설명의 틀로 작동했으며, 무당은 사회의 주변부에서 역병과 죽음을 치러내는 허드렛일을 담당했다. 개항 이

51) 신동원, 앞의 논문, 177쪽.

52) 『대한매일신보』, 1908. 3. 7.

53) 『대한매일신보』, 1908. 12. 11.

54)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1880년대 두창 환자의 치사율은 대략 2세 이하가 20퍼센트, 3-4세가 40퍼센트 정도로 추정된다. 알렌(최동 역), 앞의 자료, 107쪽.

후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이 급격히 바뀌어 나가기는 했지만 그러한 설명 양식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대체할, 신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계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7. 두창의 유행과 피해 규모

조선 말 두창의 피해가 매우 컸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이 병으로 죽었다. 요행히 살아남았어도 눈이 멀거나 얼굴이 엷는 등 후유증을 앓았다. 대체로 뽀족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단 한사람이 앓는다 해도 그 병을 고친다면 그 값집이란 매우 큰 것이다. 두창과 같이 발병률과 치명률이 높은 질병을 막아낸 것은 실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다. 두창 예방의 획기적인 방법인 종두법의 의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종두법의 역사적 가치는 두창의 피해 규모와 필연적인 함수 관계를 이룬다. 두창의 발생과 피해 규모의 크기에 따라 종두법의 역사적 가치가 그만큼 증대한다. 만일 두창에 걸려 죽은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인 종두법의 역사적 가치가 커질 것이다. 반면에 두창의 유행 규모나 두려움이 적었다면 종두법의 역사적 가치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역사가는 사료를 통해 이 함수 관계식을 설정한다. 특정 시기, 특정 사회의 두창의 크기를 잴다. 그것에 입각해서 종두법이라는 기술의 효과와 가치를 평가한다. 한국의 종두법 연구에서는 두창의 유행 크기가 어느 정도로 매겨져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나는 그 정도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창이 끼친 피해 정도를 논의의 장에 넣지 않았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대체로 두창이 크게 유행했고 피해 규모가 컸다고 가정할 뿐이다. 사실,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규모를 알아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략의 상황을 말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구체적인 수치는 1910년도의 공식적인 통계이다. 이 해에 전국적으로 두창 환자수가 2,428명, 사망자가 454명으로 나타나 있다.⁵⁵⁾ 이 해 사망자 수는 전체 전염병 사망자 1,058명의 42.9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두창의 치명률은 18.7퍼센트 정도이다. 이 수치로 조선 말 두창의 피해 규모를 일반화

55)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에 관한 연구—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8쪽.

할 수는 없다. 이 해의 유행이 보통 해보다 특히 심했지만, 이후에도 이보다 훨씬 큰 대유행이 두 차례(1920년, 1924년) 더 있었기 때문이다.⁵⁶⁾ 그래도 이 해의 유행이 이전 시기의 대유행보다 크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19세기 내내 인두법과 우두법의 실시를 통해 면역 집단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 발생률이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고 조사는 아니지만, 알렌과 헤론은 조선 말의 두창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조선인은 천연두가 다수 존재하여 ... 천연두에 걸린 아동 100명 중 2세 이하의 사망은 20명, 2내지 4세의 이환자는 40명의 사망자가 유하다고 하며, 조선인 의가의 말에 의하면 전 조선 인구 사망률의 50퍼센트는 천연두로 인한다.⁵⁷⁾

여기에 적힌 수치는 1910년대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전체 사망자 중 두창의 사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0년대에는 법정 전염병 사망률의 42.9퍼센트로 나타났다지만, 이 기록에서는 두창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50퍼센트로 나타나 있다. 치명률을 보면, 1910년도에는 전체 연령군의 평균이 18.7퍼센트였지만, 이 기록에서는 2세 이하의 경우 20퍼센트, 2-4세의 경우 40퍼센트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서도 19세기 말 두창의 피해 규모가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컸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이 콜레라보다도 천연두를 더 두려워하는 데 이는 천연두가 가난과 함께 항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라”⁵⁸⁾는 육영공원 교사였던 헐버트의 언급은 이런 상황을 잘 말해준다.

사람들이 무서워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인용한 알렌의 언급(1886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천연두 환자는 보통 병발증이나 속발증이 있는 이외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중에는 현재도 천연두에 걸린 소아 환자가 간호인의 잔 등에 업혀서 자유로 활보하는 상태로 주민 일반은 이 병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는 듯하다”⁵⁹⁾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헐버트의 말과 상충되는 듯 보인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 것일까? 나는 두 가지가 다 진실이라고 본다. 다만 헐버트의 말은 소아의 발생률과 치명률에 초점을 둔 발언이며, 알렌과 헤론의 기록은 어른의 발생률에 초점을 둔 발언이라고 본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아이가 죽는 확

56)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79-80쪽.

57) 알렌(최동 역), 앞의 자료, 107쪽; 이꽃메, 앞의 논문, 8쪽에서 재인용.

58) 이꽃메, 앞의 논문, 8쪽

59) 알렌(최동 역), 앞의 자료, 107쪽

률이 20퍼센트, 2세-4세가 40퍼센트였지만, 그 병에 걸릴 확률은 2,428명(두창 발병자)/13,130,000명(당시 전체 인구)이고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은 454명(두창 사망자)/13,130,000명(전체 인구)이었다. 즉, 병에 걸릴 확률이 1,000명 당 18명,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1000명당 3.4명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영유아가 걸릴 확률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성인이 이 병에 걸리거나 죽을 확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녀가 이 병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1910년 통계의 인용은 부적절하다. 거기에는 종두법의 예방 효과가 매우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두법이 없었던 1800년 무렵의 두창 사망률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에 해답을 줄만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다만 1910년보다 월등히 높았으리라고 추정할 뿐이다. 서양의 통계가 추정에 약간의 도움을 줄 것이다. 1680-90년 런던에서는 해마다 5,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겨 그 중 1,000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세기 초엽 영국 전체로는 연간 45,000명, 러시아는 40,000명, 프랑스는 150,000명 정도가 두창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19세기 두창의 피해는 보기에 따라 엄청났다고도 할 수 있고,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15세기 서양의 페스트나 수십 만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19세기 초반 조선의 콜레라 대유행보다 심각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두창의 발생률과 치명률, 후유증, 심리적 두려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입각해서 종두법의 역사적 가치를 매겨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대, 나는 이 시기 두창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작았다'고 보지 않으며, 종두법의 기여도가 '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두창의 피해에 대한 기술이 조목조목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막연한 기술이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자칫 피해 규모가 절대적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8. 결론: 계몽된 근대인가, '근대'의 '계몽'인가?

19세기에 우두법이 깊이 뿌리를 내려 두창의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선각자 지식영이 중요한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극적인 스토리로 치장되었다. 그 스토리는 자연/인간, 악습/이성, 과학/옛 의술, 첨단과학/구식기술, 과학기술적 측면/사회적 측면, 선구자/추종자, 조선/일본 등의 대립을 키우는 방식으로 엮여져 있다. 엄청난 자연

60) Roderick E. McGrew, 앞의 책, p. 315.

의 재앙을 이겨낸 우두법, 무지와 몽매의 무속을 깨뜨리는 우두법, 어설픈 의술(한의학)이 아닌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우두법, 인도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두법, 국가의 행정력과 무단적 경찰력에 대한 무시와 선각자의 강조, 동료와 조력자에 대한 무관심과 위인에 대한 화려한 조명,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운명과 그것의 구원자인 문명국 일본의 등장 등 이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이전에 활용되지 않은 많은 사료를 제시하면서 극단처럼 느껴진 각 항목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는 논의를 펼쳤다. 두창의 끔찍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한정되는 것임을 말했다. 두창에 대한 조선인의 무속적 관습과 우두법에 대한 반대를 그저 무시하고 몽매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한의학이 종두법이 손쓰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한편, 서양에서 유래한 우두법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채우려 했던 측면을 보였다. 인도법이 우두법 못지 않게 효과를 지닌 방법이었고 역사상 큰 족적을 남겼음을 강조했다. 우두법의 정착이 단지 몇몇 시술자의 노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강한 관심, 심지어는 무단적인 경찰력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었음을 논했다. 우두법의 도입이 일본의 활동보다도 조선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혔다.

틀림없이, 우두법에는 무속, 한의학, 인도법이 담지 못한 실험, 계량, 효과라는 근대적 정신이 담겨 있다. 그 정신이 우두법에 저항하거나 경쟁하는 다른 것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의 우두법 승리에 대한 전사(戰史)의 집필에는 그 이상의 것이 게재되어 있다. 감동과 흥분, 과장과 축소, 은폐와 왜곡이 점철되어 있다. 모두 근대적 이성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전사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정설'은 만들어졌고, 그것은 위인전과 교과서와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었다. 비판적 이해보다는 요약 학습, 주석 달기가 성행했다. 그리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진실'이 되었다.

근대적 정신을 통해 우리가 계몽되고 성숙한 것인가? 아니면 꾸며진 '진실'을 통해 우리가 '근대'를 세뇌 당한 것인가? 우두법의 승리를 극화하고, 더 나아가 그 사례를 과학 일반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원천인 그릇된 권력까지를 미화하는 논리와 방식을 생각하면 '근대'란 정말로 끔찍한 괴물이다. 그 수선스러움과 반복이 얼마나 지겨운 것인지!